

Propylene, 500달러 놓고 신경전!

FOB Korea 500-520달러로 10달러 하락 ... 중국 PP 수요침체가 문제

Propylene 가격은 6월27일 FOB Korea 톤당 500-520달러로 10달러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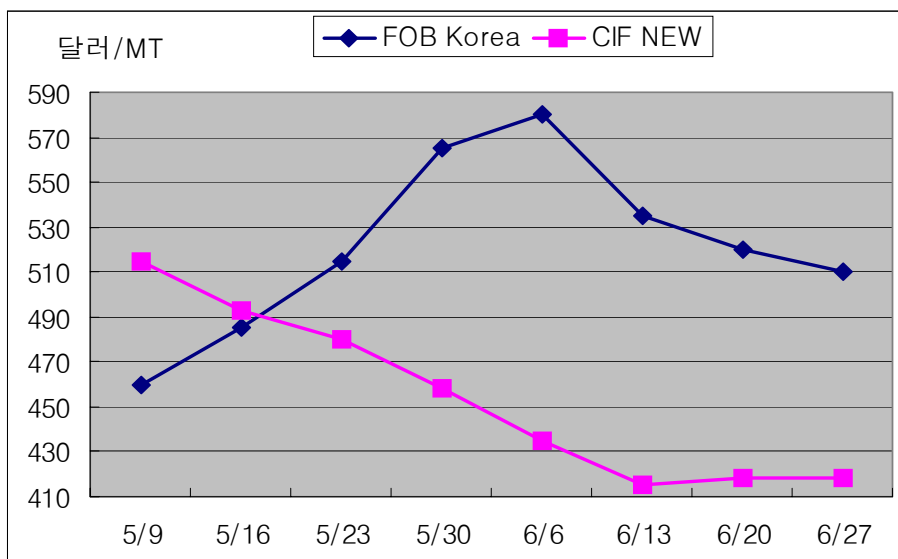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중국의 PP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 및 타이완의 프로필렌 수급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해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PP 가격은 Injection 그레이드 기준 CFR China 톤당 670달러로 10달러 하락에 그쳤으나 중국의 수요가 하락국면에 접어들어 추가하락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프로필렌 생산기업들은 7월 거래가격으로 FOB Korea 530달러를 요구했으나 구매선들은 470-480달러를 제시해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고, 7월3일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합의했으나 거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x-pipeline 톤당 490-530달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타이완에서 7월 거래물량이 CFR 500달러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타이완에서도 공급-구매간에 510달러, 530달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Prop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프로필렌 가격은 6월27일 Polymer 그레이드가 CIF NWE 톤당 400-415유로, Chemical 그레이드는 395-410유로를 형성해 보합세를 나타냈다.

<Chemical Journal 2003/06/30>